



사실 아마추어천문가 최승용 선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아마추어천문학계의 살아 있는 증인이라고 할만하다. 2001년 서울 이태원 크라운 호텔에서 있었던 최승용 선생의 결혼식에 온 하객들을 살펴보면 한국아마추어천문가회(당시 표기로는 한국아마추어천문가회) 초창기 원로 회원들부터 그 뒤를 이은, 이제는 중년이 된 한국아마추어천문협회 회원들, 그리고 최근에 활발하게 천체사진을 찍어내고 있는 나다(NADA, Network of Amateur Digital Astrophotography) 회원에 이르기까지 온통 아마추어천문학자들의 잔치 같아 보였다. 안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아마추어천문가 최승용 선생을 만났다. 서둘러 일을 마무리 하고 근처 부대찌개집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제 날씨가 무척 좋았어요. 밤새 관측하고 사진 찍고 새벽 6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저께는 4시까지 관측을 했었고요. 어제 만났으면 예전처럼 같이 밤새면서 관측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최승용 선생은 1970년대 중반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이미 한국아마추어천문가회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가입하기 전부터 별보는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혼자서 돋보기를 갖고 양철판을 두드려서 경통을 만들곤 했어요. 학교 자연 시간에 별자리 나오고 할 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한국일보 사 옆 건물에 있던 학생과학 사무실에도 자주 놀러 갔었어요. 한국아마추어천문가회도 학생과학에서 보고는 가입하게 되었고요. 제 회원번호 44번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렸어요.”

한국아마추어천문가회의 발족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례적인 창립발기회원이 여러 명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최승용 선생의 회원번호 44번이 얼마나 빠른 번호인지 짐작이 간다.

“한참 전에 이미 돌아가신 나은선 할아버지, 윤실, 이만성, 윤택석, 김성수, 이런 분들이 생각나네요. 김성수 선생님은 한국일보 기자셨는데, 이 때 이미 천체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지금은 ‘백기둥’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우성정밀 사장이신 백정흠 형도 기억나는 회원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 초등학생이었던 정규성, 이명현, 이런 후배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었지요. 그 후에 친한 선 후배들이 많이 생겼어요. 최종해, 오세춘, 박현섭, 신정욱, 이성주 등등, 셀 수도 없이 많네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이신 박석재 박사님도 청년부 회장을 맡고 계셨고요. 요즘에는 황인준 후배 같은 나다 회원들과 주로 교류합니다.”

최승용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특히 천체망원경 제작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현실이 망원경을 쉽게 살 수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All about telescope’ 같은 책을 보면서 수도파이프로 적도의 만들고 PVC 파이프 구해서 경통을 만들곤 했었습니다. 돈 없는 학생들에게 자기만의 망원경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일본에서 6인치 반사경을 사와서 6인치 반사망원경을 처음 제작해 보았어요. 그 후에 8인치 망원경을 반사경 연마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만들었어요. 워기어를 깎고 추적모터도 달았지요. 이 망원경으로 제1회 자각천체망원경 대회에서 학생부 1등을 해서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미경 아이피스를 망원경에 활용하거나 증고 쌍안경을 뜯어서 아이피스로 사용하던 시절이었다.

“이 때는 주로 안시 관측을 했어요. 카메라 자체가 귀중품이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별 일주사진이나 달 같은 것은 찍어봤지요. 워 기어 달린 적도의 마운트를 손으로 밀면서 수동가이드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방학 때면 열렸던 천체관측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큰 망원경을 들고 버스를 타고 다녔지요. 소백산천문대 갔던 기억도 솔솔 나네요.”

최승용 선생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중간에 군입대를 위해서 잠시 귀국했다가 군대를 마친 후 다시 출국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한 10년 간 아마추어천문가 활동에 공백이 있는 것이다.

“미국 갈 때 반사경, 사경, 아이피스를 다 들고 갔어요. 고물상을 뒤져서 미사일 꺾테기 같은 경통을 하나 찾아서 만들긴 했는데, 마운트는 완성하지 못해서 세워놓고 보곤 했지요. 망원경 욕심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귀국할 때는 미드 8인치 한 대를 들고 들어왔어요.”

최승용 선생은 10년 공백 덕분에 인맥이 대부분 끊어졌고, 반면 그 사이의 엄청난 아마추어천문가들의 장비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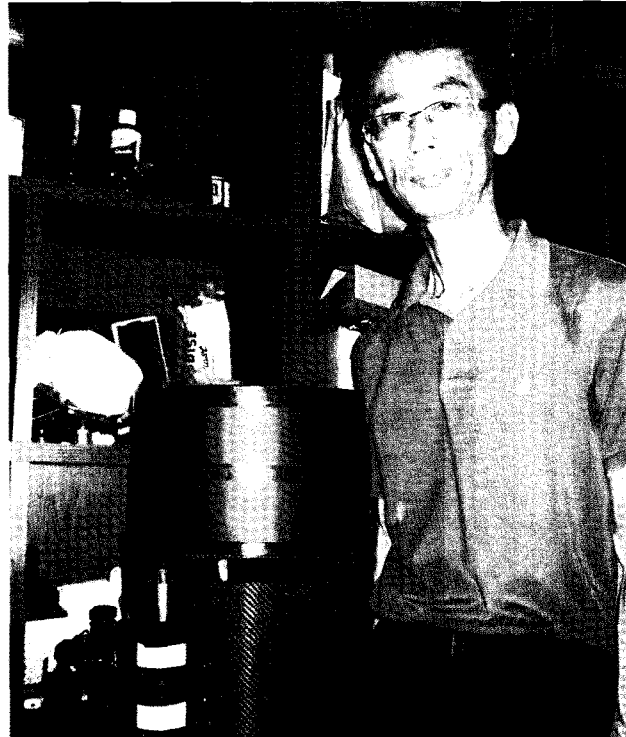
“장비가 엄청나게 좋아졌더라고요. 귀국하고 결혼하면서 저도 다시 본격적으로 별을 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안시관측파였고 행성 관측을 좋아했지요. 디지털 카메라인 니콘995가 발단이 되어서 천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목성도 찍고 달도 찍기 시작했어요. 한창 때는 1년에 150일을 관측하러 나간 적도 있어요. 행성은 날이 좀 좋지 않아도 그쪽 하늘만 맑으면 관측이 가능하잖아요.”

이 무렵 우성정밀에서 망원경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은 적도 있었는데, 취미가 일이 되고 보니 별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다시 별 보고 사진 찍는 아마추어천문가로 돌아왔다고 한다.

“하룻밤에 행성 7개를 찍은 적이 있어요. 수성 찍기가 제일 어려웠지요. 회사까지 조퇴하고 밤새도록 관측해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천체사진공모전에 냈었는데, 다른 작품이 선정되고 7행성 찍은 작품에는 상을 주지 않더군요. 좀 아쉬웠습니다. 예쁜 사진보다는 이렇게 노력이 들어간 사진이 더 가치 있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승용 선생은 주로 집근처인 안산과 대부도에서 관측을 하고 천체사진을 찍는다.

“주로 달이나 행성을 찍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사진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관측을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관측을 하던 것을 사진으로 관측을 하는 것이지요. 천체사진은 그냥 제 관측을 위한 기록이라고나 할까요. 가까운 곳에서 날씨가 맑으면 언제든 관측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강원도 가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저는 관측 자체를 즐기니까 안산에서 별 보는 것이 좋아요. 안산에서 같이 별 보고 사진 찍는 동지도 한 사람 있습니다. 별 볼 때만 서로 연락해요. 평소에



는 서로 전화도 안합니다.”

날씨가 계속 맑았던 어느 가을날에는 5일 밤을 연속해서 관측하러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제 차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망원경인 10인치 반사망원경을 갖고 다닙니다. 부대 장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 때는 웹캠으로 행성 사진을 찍는 작업에 몰두하기도 했었습니다. 황인준 이런 친구들 하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왔어요. 우리가 아마 디지털 사진 1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참, 아마추어천문가 정한섭 씨 같은 친구는 자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웹캠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목성 찍어 놓으면 줄무늬가 짝짝 보였었지요.”

멋진 천체사진을 보려면 'AstroPlanet.co.kr'에 가보자. 최승용 선생이 직접 찍은 천체사진으로 가득하다.

“요즘은 주로 딥스카이를 찍습니다. 성운이나 성단, 은하는 이동식 망원경으로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딥스카이 촬영은 날씨가 아주 좋아야 하니까 예전처럼 1년에 150일씩 관측하러 나가는 일은 없어요. 체력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요.”

딸아이가 인터넷에서 아빠 이름을 쳤을 때 아빠가 찍은 천체사진이 검색되어 나오고 천체사진전 수상 작품이 나오고 하는 것에 나름 보람도 느낀다고 한다. TV 프로그램에 소개가 된 이후로는 이웃에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다고 한다. 그래도 밤마다 관측을 하러 나가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좀 미안할 것도 같았다.

“아이가 우리 아빠는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출근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죠.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했으니 같이 여행을 자주 다니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소박하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약속이지요.”

부대찌개집을 나와서 어제 실어 놓은 장비가 가득 찬 최 선생의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니 수위아저씨가 ‘오늘은 다시 안 나가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망원경과 주변 기기들로 가득한 공작실 같은 최승용 선생님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마추어사진가 황인준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제 찍은 사진 좋던데요.’ 언뜻 엿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